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6.(수) 12:00
(지면) 2026. 5. 7.(목) 조간

재외국민, 국내 휴대전화 없어도 '재외국민 인증서'로 공공 웹사이트 이용한다

- 국내 휴대전화 유지 비용 부담 및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불편 해소
-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으로 인증서 발급, 공공웹사이트 접근성 높여

- 해외유학을 준비 중인 N씨는 앞서 유학을 다녀온 선배의 조언에 따라 출국 전 알뜰폰을 새로 개통했다. 국내 휴대전화 없으면 해외에서 공공 웹사이트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L씨는 사용하던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으려고 했지만 국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했다. 결국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잘 사용하지 않는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내거나,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 끝, 해외 번호로 즉시 인증

그동안 전세계 240만 재외국민은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마다 국내 통신사를 통한 본인 확인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현지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했기에, 많은 재외국민이 출국 전 알뜰폰

을 별도로 개통해 유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발급을 위해 왕복 수 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은 국내 통신사로만 가능하고, 공동·금융 인증서도 발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요구되어 대면 발급이 가능한 재외공관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한 경우,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5개 민간 금융앱을 통해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 등 공공 사이트 이용 방법 간소화

사용 방법도 매우 간편해졌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복잡할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을 사용하는 공공 웹사이트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 재외국민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과 비용 부담 없이 한국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재외국민 간편인증 화면 >

① 재외국민(해외전화) 선택	② 국가선택 및 전화번호 입력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재외국민이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국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외 거주 국민이 공공 웹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은 고충을 해소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김민형 (044-205-2741)
		담당자	사무관	김덕호 (044-205-2742)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책임자	팀장	국승용 (02-6399-7171)
		담당자	사무관	이수정 (02-6399-7174)

